

중국 우시, 세계 최대 미국 바이오 행사 불참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우시바이오 및 우시애펙, 지정학적 긴장 악화 속 2024 BIO 컨벤션 행사 불참

- 미국 바이오제약 전문매체인 Fierce Pharma는 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최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애펙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업계 세계 최대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미국바이오협회(BIO) 대변인 또한 우시바이오가 다음달 열리는 2024 BIO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지난해까지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애펙은 매년 바이오 컨벤션에 전시부스를 설치해 홍보한 바 있음.
- 올해 1월, 미국 의회는 소위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이 미국 연방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에서 언급된 우시애펙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행사 주최기관인 미국바이오협회(BIO)의 신임 회장인 존 크롤리(John Crowley)는 올해 3월 공개적으로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 바이오협회 회원사인 우시애펙은 미국바이오협회 회원 탈퇴를 결정함.
- 중국 최대 바이오 CDMO 기업인 우시애펙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6월 바이오 컨벤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진스크립트(GenScript)를 비롯해 Altruist Biologics, HkeyBio Tech Hzymes Biotechnology, Thousand Oaks Biologics 등 31개의 중국 CRO와 CDMO는 전시업체로 참여할 예정임.
-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코트라 및 한국바이오협회가 6월 바이오컨벤션에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한국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 한국관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26개사가 참여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한국관과 별도로 전시부스를 운영할 예정임.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바이오컨벤션에는 한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참가국으로 기록된 바 있음.

□ 한편, 올해 1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입법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음.

- 최근 STAT 뉴스는, 5월 중에 하원위원회가 생물보안법안을 수정해 7월 4일 휴회 전에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통과시킬 필수 입법 패키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함. 올해 3월 6일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생물보안법안이 찬성 11, 반대 1로 통과된 바 있음.

<참고자료>

1. WuXi Biologics withdraws from 2024 BIO convention amid worsening geopolitical tensions, Fierce Pharma, 2024.5.1
2. Momentum builds for House bill cracking down on Chinese biotechs, STAT, 2024.4.26.